

무기화학제품 코스트 상승 비상!

니켈 · 알루미늄 · 아연 가격 급등 ... 로이터 가격지수 1650 돌파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또 다른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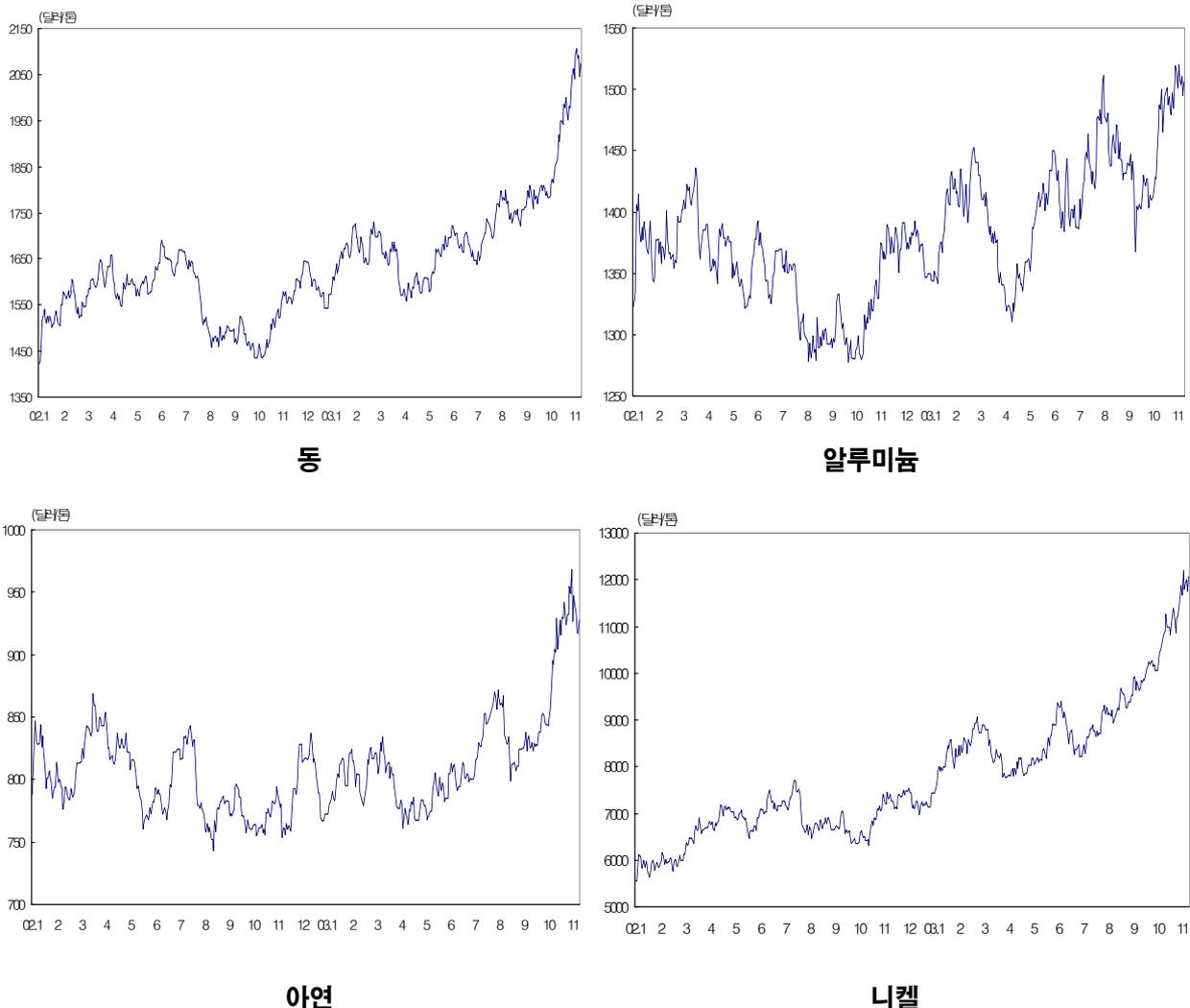
특히, 무기화학제품에서 다량 사용하고 있는 비철금속 가격이 급격히 올라 무기화학 및 화학첨가제 생산기업들이 코스트 상승에 가격경쟁이 겹침으로써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비상이 걸리고 있다.

2003년 10월에는 국제 원유가격과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이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11월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6월 이후에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비철금속, 곡물, 원면 등 17개 주요 품목(에너지 제외)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하는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11월17일 현재 1657.52로 2002년 말의 1368.81에 비해 21% 상승했다.

국제 비철금속 가격추이(LME 고시가격 기준)



특히, 원면(48.5%) 및 니켈(69.3%), 구리(34.5%) 등은 2003년 들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니켈은 1989년 8월 이후 14년 만에, 구리는 1997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원면은 199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니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비철금속 가격상승은 주요 산업인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건설, 정보통신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로이터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원유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9월 말 배럴당 25.6달러이던 중동산 Dubai유 Spot 가격이 11월17일 현재 28.1달러로 이라크 전쟁 직전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Chemical Journal 2003/11/21>